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 learning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before and after clinical practice

Mi-Ok L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whether there was a meaningful change in the learning percep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 of nursing students after completing clinical practice. Participants were 32 nursing students in the third grade. The research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 consisting of interpersonal relations and learning perception. The analysis of data was analyzed by SPSS 21 Version. General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was analyzed by Pearson's relation, and differences of variables before and after clinical practice were analyzed by paired t-test.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In clinical practice, interpersonal abilities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learning outcomes ($R = .351, p = .049$). The interpersonal abilities of nursing students improved significantly ($t = 2.264, p = .13$) after completion of clinical practice. Nursing college students recognized that their interpersonal abilities had improved after completion of clinical practice, and the improvement of interpersonal abilities was statistically supported. Considering that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was an important factor in the clinical practice related stress of the nursing college students, it was meaningful that the interpersonal ability improved after the clinical practice.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interpersonal abilities and learning perception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suggests future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rovide basic data on education that will enhance the satisfaction of students' clinical practice and improve their learning outcomes.

▶ Keyword: Students, Nursing, Clinical practice, Relation, Learning

I. Introduction and Related Works

간호대학생은 저학년에서 배운 간호학적인 기초 이론과 지식은 임상실습에 적용하여 실제적인 간호문제를 관찰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한다.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에서 대상자와 보호자, 간호사와 동료 등 여러 유형의 사람과 대인관계를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겪기도 한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경험은 학생으로서 자신을 평가하는 기회가 되며, 나아가 미래에 자신의 구체적인 간호전공분야를 선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학생의 임상실습이 어떠하였는가는 매우 중요하게 관심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과 관련된 연구는 다양하였다.

대인관계는 사람과 사람사이의 모든 관계를 포괄하므로, 직장과 같은 사회조직에서의 행복과 불행 같은 감정 중 인간관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85%이다[1]. 간호대학생은 간호사가 되기 위하여 1,000시간의 임상실습을 하는 중에 동료와 환자, 간호사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과의 대인관계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는 임상실습에서 중요시 되어 자가 평가나 동료평가를 통해 일부 추정되고 있다. 임상실습에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와 학업성적은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는 평균보다 높게 인지되었고, 학업성적과 전공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2]. 간호대학생의

• First Author: Mi-Ok Lee, Corresponding Author: Mi-Ok Lee

*Mi-Ok Lee (okmilee@kduniv.ac.kr), Dept. of Nursing Science, Kyungdong University

• Received: 2018. 10. 11, Revised: 2018. 11. 22, Accepted: 2018. 12. 04.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평균보다 높았으며[2,3], 임상실습만족은 대인관계와 순의 상관관계를 보였다[2]. 간호임상실습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낮아지는 상관관계가 있었다[3]. 간호학생의 임상실습만족이 높을수록, 실습동료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실습소진이 낮았다[4].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을 하는 중에 대인관계를 경험하면서 스트레스, 소진 등을 겪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서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서 스트레스나 자존감, 나아가 전문적 정체성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간호대상자가 인간이므로 간호학문에서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이론교과목을 개설하여 임상현장에서 대인관계를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적용하도록 습득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기관에서 실습교육을 하는 동안에 간호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간호기술, 대인관계의 이론적 지식을 활용하여 간호대상자에게 간호를 전달하고자 한다. 간호영역에서의 대인관계는 간호대상자의 간호의 질과 관련된 뿐만 아니라 간호사 자신의 안위와 만족, 자아존중감등 감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을 준다. 대인관계는 초보간호사의 경우에 간호직무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로 나타났다[5]. 간호대학생은 대인관계는 자존감이나 우울등과 관련이 있어서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자존감이 높으며, 대인관계가 나쁠수록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6].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을 할 때는 임상실습교육이 실습지의 간호사 업무와 역할에 의존하고 있어서 임상실습 현장에서 간호사와의 관계가 긍정적이지 않은 경우에 스트레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학습에 방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7,8].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을 하면서 겪은 부당함이나 무례함은 이들의 자존감저하와 역할갈등을 초래하여 간호전문인으로써 정체성을 위협하였다[9]. 따라서 간호학에서는 임상실습을 하기 전에 저학년에서 선수과목으로 인간관계에 관한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권하고 이를 임상실습에서 활용하길 기대하고 있다. 간호영역에서 대인관계관련 논문을 살펴보면, 간호사의 수평적 의사소통이나 비공식 의사소통이 대인관계 능력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10].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중에 경험하는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자존감과 정체성과 스트레스와 역할갈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학습인식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과 관련된 학습인식을 다룬 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임상실습에서 실습지도 교수가 학생들에게 임과 워먼트를 줄 때, 간호대학생들이 전문적인 자신감을 느낀다고 하였다[8]. 또한 시뮬레이션 실습이 임상실습을 대신하는 실습교육이며, 임상수행능력이나 임상 판단력을 학습인식의 일부로 본다면, 임종간호 시뮬레이션 실습 후에 임상수행능력과 임상 판단력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11].

임상실습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을 고찰해 볼 때, 이스라엘의 간호대학생 2, 3, 4학년892명을 임상실습전과 임상실습, 상급실습의 3단계 실습동안 경험한 임상적 학습경험을 조사한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실습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중간

정도이었다[12]. 한국의 경우에 1학기 이상 임상실습을 한 경험이 있는 3, 4학년을 261명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임상실습 만족도간의 관계 대인관계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만족도는 대인관계의 중요성, 학업 성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임상실습만족도와 대인관계간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13].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는 임상실습만족도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대인관계와 학업은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들은 한 학기만 실습한 3학년 학생부터 4학년 학생들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대상자간 실습기간에 따른 차이가 크고 그에 따른 경험의 변화가 고려되어야 함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조사연구가 대부분이어서 횡단 조사한 자료로 관련 요인간의 관계를 다루거나 1회성 결과를 보고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임상실습 전후에 간호대학생의 인간관계 능력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연구는 드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에 임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임상실습만족도, 학습인식, 핵심기본간호술기 만족도, 대인관계 수준을 알아보고 이들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며, 임상 실습을 마친 후에 이들 변수가 변화를 보였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II. Methods of Research

1. Participants

본 연구 참여자는 간호대학에 재학 중으로 임상실습에 임하여 8주간의 실습을 한 남녀 간호대학생 3학년 32명으로 연구자로부터 연구목적과 방법에 대한 설명들은 후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이다.

2. Scales and data analysis

연구 자료는 임상실습 전후로 간호대학생 32명에게서 2017년 8월에서 11월까지 설문지로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인구학적 일반적 정보 5문항, 핵심기본간호술기 만족도 1개 문항, 임상실습만족도 1개 문항, 대인관계능력 25개 문항, 학습인식 10개 문항의 총 39개 문항으로 구성된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대인관계의 25개 문항 척도는 1971년 Schlein 등[14]이 개발한 Relationship Scale을 대학생에 맞도록 2005년 주지선이 수정한 대인관계척도[15]로 측정하였다. 7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며 5점 리커트 척도이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한다. 2016년 간호사의 비폭력 의사소통 프로그램의 적용 전후의 대인관계변화를 측정한 연구[16]에서 대인관계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64$ 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94$ 이었다.

임상실습전후에 각각 수집된 자료는 SPSS 21 프로그램으

로 분석하였다. 인구학인 일반적 정보는 기술통계, 각 변수 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핵심기본간호술기 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 대인관계, 학습인식의 임상실습 전후의 차이는 paired-test로 분석하였다.

3. Ethics

설문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의사를 표현한 자는 서명 동의서를 작성 한 후에 실습 전과 실습 후에 각각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는 익명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개인정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였으며, 설문지에 답을 하는 도중에 철회할 수 있음과 그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없음과 설문 내용은 본 연구에만 사용되며, 연구가 끝난 이후에 분쇄하여 폐기함을 설명하였다.

4. Study Design

본 연구는 임상실습중인 간호대학생을 편의추출하여 실험 전후로 각각 자료를 수집하여 그 차이를 분석한 단일군 유사실험연구이다. 본 연구는 임상실습에 임하는 간호대학생 32명을 대상으로 실습 전과 실습을 마친 후 핵심기본간호술기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 대인관계능력, 학습인식을 측정하여 실습 전후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은 실습병원에서 총 8주간 연속 이루어졌으며, 임상실습교육에는 임상실습지에서의 현장실습전반의 내용과 함께 간호교육인증평가원이 제시한 핵심기본간호술기, 용어퀴즈, 간호진단, 동료와 자가 평가가 포함되었다. 실습전반에 대한 평가는 현장지도자의 평가와 실습지도 교수의 평가가 포함되었으며, 핵심기본간호술기는 각 실습교과목에 포함된 핵심기본간호술기에 대한 지식평가와 술기 평가 실시가 포함되었다.

	Pre-test	CP	Post-test
EG	E01	X	E02

EG: experimental group
E01: pre-test
E02: post-test
CP: clinical practice
X: treatment

Fig. 1. Study design

4. Clinical Practice Contents

연구 참여자인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내용은 Table. 2와 같다. 임상실습은 2주씩 4개의 실습교과목으로 나뉘어 8주간 실습하였다. 대상자는 각 실습교과목에 따른 간호단위에서의 실습은 하루 9시간(점심시간 1시간 포함)씩 주 5일간 2주(90시간)으로 이루어졌다. 각 2주간의 임상실습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임상실습의 평가 중 병동실습평가는 간호단위의 수간호사가 실시하였다. 기타 질병에 따른 보고서와 의학용어, 동료평가, 간호진단과 핵심간호술기평가는 실습지도교수가 실시하였다(Table 1).

Table 1. Contents of Clinical Practice

Instructor	Clinical Practice Contents and Evaluation Items
Unit nurse (Head nurse)	attendance/attitude
	nursing care skill in unit
	interpersonal relation
	therapeutic communication
	Cooperate with unit staff
Professor	basic nursing skill test (knowledge and skill)
	case study
	disease report
	nursing diagnosis
	nursing process
	medical term test
Self / peer report	personality and practice attitude
	knowledge application
	nursing skill

III. Results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연구 참여자는 간호대학 3학년에 재학중이며 임상실습에 참여한 32명이다. 연구 참여자는 여자가 24명(75.0%), 남자가 8명(25.0%)이어서 여자가 더 많았다. 참여자의 연령은 20세에서 23세이였으며 21세(50.0%)가 가장 많았다. 휴학경험이 있는 학생은 6명(18.7%), 휴학경험이 없는 학생은 26(81.3%)이었다. 종교가 있는 학생은 13명(40.6%)이고 종교가 없는 학생은 18(59.4%)이었다((Table 2).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3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ax-Mini
Gender	Male	8(25.0)	
	Female	24(75.0)	
Age(yr)	20	7(21.9)	20-23
	21	16(50.0)	
	22	7(21.9)	
	23	2(1.2)	
	Total	32(100.0)	
Experience of Absenteeism	Yes	6(18.7)	
	No	26(81.3)	
Have a Religion	Yes	13(40.6)	
	No	19(59.4)	

2. Satisfaction of basic nursing skill and clinical practice by gender

간호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핵심기본간호술기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는 다음과 같다(Figure 2). 핵심기본간호술기 만족도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다. 임상실습만족도는 핵심기본간호술기와 달리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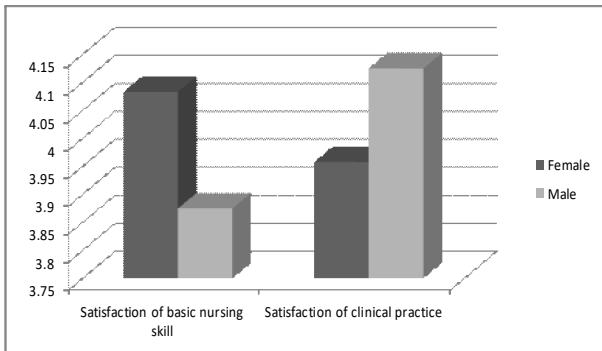


Fig. 2. Satisfaction of basic nursing skill and clinical practice by gender

3. Satisfaction of basic nursing skill and clinical practice by religion

간호대학생의 종교에 따른 핵심기본간호술과 임상실습 만족도는 Fig. 3과 같다. 종교가 있는 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기 만족도가 종교가 없는 학생보다 낮았다. 임상실습만족도는 종교가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보다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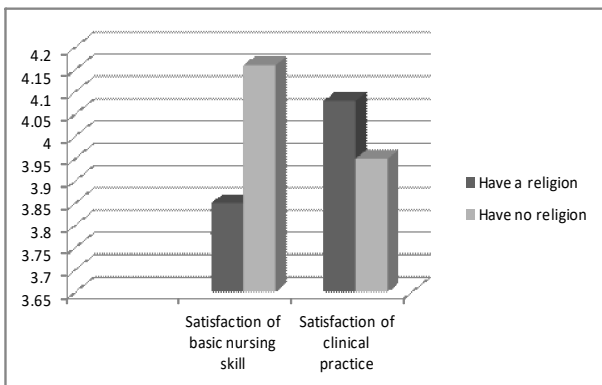


Fig. 3. Satisfaction of basic nursing skill and clinical practice by religion

4. Satisfaction of basic nursing skill and clinical practice by absenteeism

간호대학생의 휴학경험에 따른 핵심기본간호술기 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는 Figure. 4와 같다. 휴학경험이 있을 때 핵심기본간호술기와 임상실습만족도가 휴학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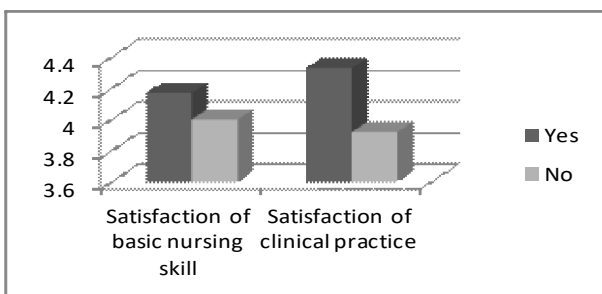


Fig. 4. Satisfaction of basic nursing skill and clinical practice by absenteeism

5. Reliability of scale

본 연구에서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Table 3와 같다. 학습인식은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학습인식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s α=.96이었다. 대인관계는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 척도의 도구 신뢰도 Cronbach' s α=.94이었다.

Table 3. Reliability of scale

Scale	Cronbach's α	Number of items
LP	.96	10
IPR	.94	25

LP: Learning perception
IPR: Interpersonal relation

6. Correlation of variables

연구변수간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핵심기본간호술기 만족도(SBNS)와 임상실습 만족도(SCP)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629, p=.000$). 핵심기본간호술기 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핵심기본간호술기와 학습인식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r=.483, p=.005$), 핵심기본간호술기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습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임상실습만족도와 학습인식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561, p=.001$). 이는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습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대인관계와 학습인식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351, p=.049$). 이는 간호대학생이 자신의 대인관계의 능력을 높이 인지할수록 학습인식을 높게 평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3. Correlations of variables

		SBNS	SCP	IPR	LP
SBNS	Correlation	1			
	Sig.(2-way)				
	N	32			
SCP	Correlation	.629**	1		
	Sig.(2-way)	.000			
	N	32	32		
IPR	Correlation	.315	.340	1	
	Sig.(2-way)	.079	.057		
	N	32	32	32	
LP	Correlation	.483**	.561**	.351*	1
	Sig.(2-way)	.005	.001	.049	
	N	32	32	32	32

** $p < .01, * p < .05$

SBNS: Satisfaction of basic nursing skill

SCP: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PR: Interpersonal relation

LP: Learning perception

7. Differences in variables of nursing students before and after clinical practice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전후의 기본간호술기만족도 (satisfaction of basic nursing skill: SBNS)와 임상실습만족

도(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SCP), 대인관계(interpersonal relation), 학습인식(Learning Perception)은 Table 1과 같다. 기본간호술기 만족도는 실습 후에 4.03에서 4.23으로 향상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임상실습만족도는 4.00에서 4.19로 약간 상승했으나 통계적으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인관계는 임상실습 전에는 3.75로 중상 정도이었으며 실습을 마친 후에는 3.87로 향상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2.637, p=.013$). 학습인식은 3.87에서 4.04로 향상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지지되지 않았다.

Table 4. Differences in variables before and after clinical practice

(N=32)

Variables	Pre-test	Post-test	Differences		d.f=31	
	Mean±SD	Mean± SD	SE of Mean	Mean ±SD	t	p
SBNS	4.030±.933	4.281 ±.812	.127	.250 ±.718	1.969	.058
SCP	4.00 ±.880	4.187 ±.737	.130	.187 ±.737	1.438	.161
IPR	3.751±.461	3.886 ±.561	.015	.135 ±.289	2.637	.013*
LP	3.868±.725	4.039 ±.616	.104	.170 ±.590	1.634	.112

** $p < .01$, * $p < .05$

SBNS: Satisfaction of basic nursing skill

SCP: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PR: Interpersonal relation

LP: Learning perception

IV. Discussion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와 대인관계, 간호술기 만족도, 학습인식을 실습전후로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임상실습후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술기 만족도, 학습인식은 임상실습전과 비교하여 각각 향상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지지되지 않았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후의 대인관계는 임상실습전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임상 실습 전후로 대인관계 변화를 측정하여 분석한 연구를 찾기 어려워서 비교하여 설명하기 어려우나 이들 요인간의 관계등을 다룬 연구를 통해 그 의미를 토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실습 후 대인관계가 향상되었음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인관계가 간호학에서 임상현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이후 간호사로서 이직이나 사직등에도 영향을 준다고 볼 때, 임상실습에서의 대인관계 경험의 긍정적인 측면을 시사한다.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가 자존감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우울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연구결과[5]를 참조할 때,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을 마친 후에 대인관계가 향상됨으로써 자존감 상승과 우울 감소로 간호대학생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일 수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학습인식은 대인관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간호대학생이 실습단위의 간호사와의 관계가 긍정적일 때 학생간호사가 쉽게 임상실습기술 습득하였다[19]는

이전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간호사와 학생간의 인간관계가 학생의 임상실습학습에 중요하다[19-21]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의 대상을 총괄하여서 간호사 등으로 한정하지 않았지만,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대인관계가 실습을 마친 후에 향상될 뿐만 아니라 학습인식은 영향을 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실습만족도는 대인관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서 대인관계능력을 높게 자각할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상실습 스트레스 중 역할갈등이나 환자와 보호자의 태도, 의료인의 태도를 대인관계요인으로 간주할 때, 임상실습만족도와 임상실습스트레스가 부의 상관관계를 가졌던 이전의 연구[22]를 지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즉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만족도가 자아존중감과 직업정체감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감정노동과 직업정체감에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던 연구결과[23]에서 감정노동이 대인관계에서 발생함을 고려한다면, 이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감정노동이 심할수록 대인관계가 좋지 않으므로 실습만족도가 낮았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현장에서 대인관계능력이 대학생의 학습인식과 대인관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간호사가 된 이후에 간호사로서의 정체감 형성에도 주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자존감이나 정체성은 직업적 전문가로서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더욱 다양한 측면으로의 관심이 요구됨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인 임상실습을 교육함에 있어서, 실습의 교육적 성과에 도달하도록 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실습만족도를 높이는 대인관계 측면을 중요시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경험하도록 하는 교육목표와 방법,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V.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8주간의 임상실습을 마친 간호대학생 3학년의 실습만족도, 대인관계, 학습인식에 차이가 있는 지 확인함으로써 단순한 조사연구에서 실제의 변화를 측정하였다는 데 연구결과가 갖는 의미가 크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8주간의 간호 임상실습을 마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임상실습을 마친 후에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인관계능력이 높을 때 학습 성과가 높으며,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음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4학년에서의 임상실습 전후로의 대인관계향상을 확인하고 3학년과의 비교할 수 있는 연구를 제안한다.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가 학생의 학습성과 뿐만 아니라 임상실습만족, 나아가 직업정체성에도 영향을 줄을 고려할 때, 이에 관한 다양한 측면의 양적,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편의추출에 따른 일개 대학교에서 진행된 단일군 전후설계 유사 실험연구로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앞으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연구,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임상실습에 임한 간호학생들에게 적용한 효과 검증 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 [1] <https://namu.wiki/w/%EC%9D%B8%EA%B0%84%EA%B4%80%EA%B3%84>
- [2] H.W. Kwak, J.E. Yi, Rel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clinical stres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2, pp.147-155, 2016.
- [3] A.K. Lee, H.S. You, I.H. Park, Affecting factors o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Nurs Adm, Vol.21, No.2, pp. 154-163, March 2015.
- [4] H. H. Cho, J.M. Kang,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practice burnout in student nurses, Child Health Nurs Res, Vol. 23, No.2, pp.199-206, April, 2017.
- [5] S. Y. Lee , E. J. Oh and K. M. Sung , The Experiences of Turnover Intention in Early Stage Nurse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ch, Vol. 19, No. 2, pp. 168-176, 2013
- [6] H. I. Lee,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depression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 18, No. 2, pp. 109-118, 2010.
- [7] M. Antony et al.,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tool to measure incivility in clinical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Vol. 30, No. 1, pp. 48-55, 2012..
- [8] B-Mould Y and H. K. Laschinger, Effects of incivility in clinical practice settings on nursing student burnout,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Scholarship*. Vol. 11, No. 1, pp. 145-154, 2014.
- [9] J. Kang, Y. J. Jeong and K. R. Kong, Threats to identity: A grounded theory approach on student nurses' experience of incivility during clinical place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48, No. 1, pp. 85-95, 2018.
- [10] J. Yi, The structural modeling for nurses Interpersonal competence within an organiz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21, No. 4. pp. 366-374, September, 2015.
- [11] K. I. Jeong and J. Y. Choi, Effect of debriefing based on the clinical judgment model on simulation based learning outcomes of end-of-life care for nursing students: a non-randomized controlled trial, Vol. 47, No. 6. pp. 842-853, 2017.
- [12] H. Admi et. al., Nursing students' stres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along different stages: A cross-sectional study, *Nurse Education Today*, September, Vol. 68, pp. 86-92, 2018. doi: 10.1016/j.nedt.2018.05.027
- [13] H. W. Kwak and J-E. Yi, 'Rel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clinical stres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3, PP. 147-155, 2016.
- [14] S. Schlein., B. Guerny and L. Stover,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71
- [15] J. S. Ju, "The Effects of the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Communication and Human Relationship"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2005.
- [16] M. Lee & S-B. Lee, Effects of Nonviolent Communication (NVC) Program consist of Communication Ability, Relationship and Anger in Nurse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21, No. 10, pp. 85-89, 2016.
- [17] H. J. Shin and H. R. Min, Effects of student's major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learning experiences and course satisfaction of undergraduate

- studen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47, No. 3, pp. 51-75, 2009.
- [18] M. Lee, M. Y. Lee and S. Y. Kim, A Study on Nursing students on self-leadership and their perception of learn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 21, No. 3, pp. 417-425, 2015.
- [19] S. P. Hirs, Nursing Students on the Unit: Staff nurses's role in the clinical practice setting,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Vol. 42, No. 8, pp. 4-6, 2016.
- [20] Dimitriadou, M., Papastavrou, E., Efstathiou, G. and Theodorou, M.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of learning and supervision in the clinical practice environment: Nursing students' clinical learning', *Nursing and Health Sciences*, Vol. 17, pp. 236-242, doi:10.1111/nhs.12174.
- [21] K. L. Reeve et al., 'Perceived stress and social support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educational experiences', *Nurse Education Today*, Vol. 33, No. 4, April, pp. 419-424. doi:10.1016/j.nedt.2012.11.009
- [22] N. Y. Yang and S. Y. Moon, Relationship of self-leadership, stres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7, No. 2, pp. 216-225, 2011.
- [23] M. H. Lee and M-R, Lee, The effect of emotional labor of clinical practice, self-esteem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n professional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2, No.4, pp. 527-536, 2016.

Authors



Mi-Ok Lee received the B.S., M.S. and Ph.D. degrees in Nursing Science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Chung Nam University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in 1986, 2003 and 2013, respectively. Dr. Lee joined the faculty of the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at Woosuk University, Jeonbuk, Korea, in 2008. She is currently a Associate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Kyungdong University, Wonju, Korea. She is interested in psychological nursing, medical-surgical nursing and nursing administration and nursing education.